

‘희망나무’를 심는 사람들

한국여성재단에 ‘희망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있다.

‘희망나무’란 재단 속에 기금창구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그 기금을 키워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기금이 자라 열매를 맺으면 희망나무를 심은 사람의 뜻에 따라, 그 열매는 그의 이름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 전달된다.

첫 번째 희망나무는 <유분자기금>이다. 이 나무는 UEC(United Exchange Cooperation)의 최캐롤 사장이 평생을 전문직업인으로, 사회봉사자로, 여성운동가로 사신 어머니가 조국의 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하는 소망을 이루어 내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나무를 키워가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가는 물품가의 1%를 축적해 가는 것으로 그 씨앗기금은 7백50만원이다. 이 나무의 열매는 우리 딸들의 국제적 지도력양성에 쓰여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희망기금은 <무궁화기금>이다. 이 나무는 의정부에 자리하고 있는 비누 제조회사인 (주)무궁화의 최남순 회장이 비누를 수입해 가는 최캐롤사장의 좋은 뜻에 따라 그가 구입하는 물품가의 1%인 7백50만원^을 희망나무를 심었다.

5월에 심은 또 하나의 희망나무는 <길의료재단기금>이다.

한 달에 200여명의 새 생명이 탄생하고 있는 인천 길병원의 이길여 이사장이 태어나는 아기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그 아기의 이름으로 만원씩을 적립 희망나무로 키워가는 것이다.

한국여성재단 속의 희망나무는 개인이 심을 수도 있지만 친구, 가족, 기관 등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키워갈 수 있다.

이 작은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날 한국여성재단이 소망하고 있는 ‘딸들의 밝은 세상’을 앞당길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의 나눔 문화는 아직 그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렇게 희망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는 약속된 것이다. 희망을 잃은 딸들에게 희망을 찾아주는 더 많은 ‘희망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토양을 기대해 본다.